

사료섭취량은 체크되어야한다

김 영 환
〈한국유리브리드 전문〉

양계가는 잘 배합된 좋은 사료만을 먹이면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작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작업은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우리는 닭의 산란율에 따라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육성종의 체중증가가 너무 부진하면 사료급여량을 늘려야 할지 모른다. 산란을 처음 시작하는 닭의 사료 섭취량이 너무 낮으면 앞으로의 산란능력에 지장을 받을지 모른다. 우리는 내가 키우고 있는 닭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이를 기록하여 사료를 급여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판 배합사료의 성분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료는 완전 배합사료 이므로 어떠한 첨가제도 더 첨가하여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사료포장지에 인쇄 해 놓은 사료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닭이 콕시딕 증상이 나타나고 류코사이토준 증상이 나타날때 질병 첨가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내가 키우는 닭은 너무 많은 변동사항(일령, 계사기온, 수용밀도, 산란량, 사료섭취량, 전장도)속에서 생활 한다. 그러나 시판 사료는 우리 닭의 이러한 변동사항을 일일이 고려하여 만들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개연성 위에서 5~6가지의 표준 사료를 만들어 내놓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양계가는 모이주는 작업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방식으로서의 가끔양양학을 알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0일령~70일령사이

이 시기에는 계사이동, 디비킹, 여러차례의 예방접종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이다.

무조건 프로그램만을 따라 초생추사료에서 중추사료를 바꾸지 말고 병아리의 성장이 부진할 때는 사료 변경을 늦춘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사료섭취량은 항상 줄어드는 법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닭의 내부기생충(콕시딕, 회충)증세가 악화할 뿐아니라 사료섭취량이 줄면 공급되는 질병예방제가 감소되어 장내 기생충 증세가 더욱 악화된다. 이기간 중에는 꼭 한번은 콕시딕증이나, 회충증, 곰팡이성 질환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흔히 닭의 산란자질은 30일령 부터 70일령 사이에 결정된다는 말을 듣는다. 이들 질병에 의한 피해를 한번 크게 받아 놓으면 좋은 닭으로 클수 없다는 뜻인것이다.

특히 회충 구제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 50~60일령 사이에 반드시 일차 구충을 해야 할것이다.

70일령~120일령

요즈음 눈으로만 보는 관리에서 실제로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사용관리에 응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이 기간중의 닭의 체중을 적어도 30일마다 측정 하여 사료급여의 표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기간중에 체중 수치가 표준보다 적으면 원인을 제거하여 주면서 양질의 사료를 충분히 급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체중측정치가 표준보다 크면 사료량을 조절해야 할것이다. 이 기간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점은 닭이 건강하고 날씬하게 자라지 않고 체지방이 축적되는 점이다.

체지방이 축적되면 초산기에 탈항과 카니발리즘으로 폐계가 많이 발생하기도 모른다. 케이지에서 육성하는 중대추에서 주의해야 한다.

칼슘(Ca)요구량

육성중인 헛닭을 위한 칼슘 요구량은 2가지 점에서 중요하다(1). 성장초기에는 충분한 골격형성과 성장을 위하여 적절한량이 요구 될뿐만 아니라, 과다한 량의 칼슘을 공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주령 이전에 2%가까이 되는 또는 2%이상의 칼슘을 함유한 사료를 먹으면 신장(腎臟)을 손상시켜 영원히 신장의 기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초생주 사료에 어분을 첨가할 경우 칼슘 과다급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에 고의 혹은 실수로 산란사료를 급여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2) 두번째로 산란개시시의 칼슘 공급이 중요하게 된다. 초란(初卵)전까지 골격에 충분한 칼슘을 축적시켜 놓지 않으면, 초산계는 골격이 약해지고 난각질이 약해진다.

칼슘 함량이 낮은 대추사료를 초산 5%시까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따를 경우에는 120일령부터 산란사료로 완전 대체할때까지 대추사료에 고운 패분을 3~4% 첨가해주는 것이 좋다고 젤프 대학의 섬머 박사는 말하고 있다.

초란이 너무 빠른 닭의 사양

120일령경에 알을 낳기 시작한다면 분명 초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닭이 초산하게 그에 따르는 피해가 많음을 알고 있다. 일령생 정량보다 1~2gm 중량이 낮은 알을 걸우어야 하고 탈항, 카니발리즘, 생식기계통의 질환으로 많은 피해를 볼지 모른다.

이 시점에서 성성숙의 진전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 초산하는 닭을 산란사료로 바꿔 먹이지 말고 계속하여 대추사료를 먹이면 성성숙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효과없는 방법일지 모른다. 기왕 초산한 닭은 산란 10%쯤 올라가면 산란사료로 대체하여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사료 섭취량을 체크해야할 두번의 시기

자기가 키우고 있는 계군의 사료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양계가는 흔하지 않다. 미주 리버사이드 거주대학의 고문 도날드 벨 (Donald Bell)씨는 산란계의 일생에 있어서 사료섭취량을 체크하여야할 중요한 두번의 시기는

- 1) 계군이 산란을 개시할 때.
- 2) 계군이 산란개시후 8~10개월이 되었을 때라고 권고하고 있다.

초산기에 있는 닭의 체중이 1250~1350gm정도로 한참 자라고 있는 중이다. 초산기 닭들은 한편으로는 성장에, 또 한편으로는 난중의 빠른 증가와 고산란 유지를 위하여, 2중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 초산계 1,000수당 1일 사료섭취량이 90kg도 못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보아오고 있다. 이런 경우, 이 닭들은 성장적으로 사료섭취를 하는 닭들에 먹이는 산란사료보다 영양농도가 더욱 높은 사료를 주어야 한다.

20~22주령 사이의 사료섭취량을 체크하십시오.

헛닭이 20~22주령이 되었을때 그 계군이 1수당 1일 몇 gm의 사료를 먹는지 알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섭취하는 사료량으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한다.

시기에 있어서 단백질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이다. 연구자에 따라 권장량은 다르지만 1수당 약 17gm~18gm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표1은 헛닭1일 1수당 사료섭취량에 따라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나타내 주고 있다.

만일 1000수의 헛닭이 1일 90kg의 사료를 섭취할때 그닭은 1일 17gm의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하여 18.7%의 사료를 필요로 하고 18gm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단백질 19.8%의 사료를 급여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특히 여름부중에 초산을 보는 닭들이 이 케이스에 속하는데 완전배합 사료에 어분을 3~4% 첨가하면서 새벽점 등을 강화하면 효과적이다.

1. 1일1수당 17그램 및 18그램의 단백질을 급여하

기 위해 요구되는 산란사료의 질(단백질 %)

1000수당 1일 사료섭취량	1수당 1일 단백질 요구량	
	17gm	18gm
85kg	20%	21.2%
90kg	18.7	19.8
95kg	17.9	19
100kg	17.0	18
105kg	16.2	16.9
110kg	15.5	16.4

산란한지 8~10개월된 닭의 사료섭취량을 체크 하십시오.

이 시기에 있는 산란계들이 1일 115~135gm의 사료를 섭취하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시기의 단백질 요구량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과학자들은 초산기 단백질 급여량 보다는 이시기의 단백질 급여량이 많아야, 같아야, 적어야 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제기의 단백질 급여량이 아무래도 초산기 보다는 적어야 한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다. 표2는 3가지 수준의 단백질의 섭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료의 질(단백질 함량%)을 보여주고 있다. 표2를 분석할때 지금까지 노제에게 과도한 단백질을 공급하고 있었던 예가 많았던 것 같다.

표 2. 사료 섭취량이 많은 노제에게 1일 1수당

16, 17, 18그램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산란 사료의 질(단백질 %)

1000수당 1일 사료섭취량	1수당 단백질 요구량		
	16그램	17그램	18그램
115kg	13.9	14.8	15.7
120kg	13.3	14.2	15
125kg	12.8	13.7	14.4
130kg	12.3	13.1	13.8
135kg	11.7%	12.4%	13.2%

지금까지 사료이용기술에 대한 몇가지를 기술하였다. 한 양제가와 다른 양제가 사이에는 아주 조그만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이 조그만 차이가 그들 양제자들을 번영하게 하고 혹은 후퇴하게 된다. 꾸준히 연구하는 양제가의 조그마의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협성가축약품회사

가축예방약 치료제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옆

가금진료전문

협성가축병원

서울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옆

주간 (92) 7779

야간 (96) 9231

주간 (92) 7779

야간 (96) 9231

